

### 환경친화적 예술작품

#### 흑색 정원(반 기념비로서의 정원)

제니 홀저라는 작가는 제 1차 세계대전의 전사자들을 위해 1929년에 노드호른에 세워지고, 그 후 1959년 1870/71년의 전쟁과 2차 세계대전의 전사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확장된 '랑에 마르크트 플라츠'를 1994년 '흑색정원'이라고 명명하고, 약 만개의 검은 꽃 혹은 검은 잎으로 된 관목, 풀등을 심었다. 여기에 2차 세계대전의 희생자를 위한 기념비 앞에 대략 100개의 흰 꽃 식물로 이루어진 화단이 조성되었다. 홀저는 여기에서 벨기에의 랑에마르크라 근처의 살육에 대한 이야기를 드러내었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전도시켰다. 이러한 홀저의 작업은 살육을 위한 전쟁의 이미지 대신에 전환적인 사고의 환경을 만들었다.

흑색 정원에 대해 그녀는 반-기념비적인 작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을 환기하지 않기를 희망했기 때문이다. 어떤 기념비는 분명하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드호른에서 전쟁이라는 사건이 있었고, 이것과 결합하는 슬픔이 있었다. 기념비는 이러한 슬픔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막아야 하며, 그 기념비가 후에 인간이 전쟁에 대해 열광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었다. 그녀는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려는 끔찍한 결정에 대한 대가를 보여줘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흑색 정원을 구상했다.

홀저는 정원을 만들 때, 또는 그러한 테마 자체를 숙고할 때 결코 어떤 예술작품의 전통을 생각하지 않는다. 작품에서 그녀는 예술의 세계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것, 특히 전쟁 혹은 정원과 관계를 맺는다.

정원은 일종의 출발점이다. 정원은 일종의 새로운 종류의 행위예술이다.

흑색정원은 학습의 장소이자 경험의 장소이다.

#### 하하그룹의 에이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적 측면으로서의 정원

시카고의 하하그룹(리처드 하우스, 웬디 제이콥, 라우리 팔머, 존 플루프)은 그들의 프로젝트 <범람 1992/93>에서 로저스 공원의 한 숲집에서 수경 정원을 설치했다.

에이즈 환자들을 위한 가능하면 박테리아가 없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식물을 재배하고, 그런 식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젝트이다. 수경재배로 배양된 식물들은 박테리아가 없고, 복잡하게 세척을 하지 않아도 에이즈 보균자들이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식물을 재배하는 것은 단순히 실용적인 사용만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환경에서 사회적인 상호관계와 책임에 대한 은유가 궁극적인 목표였다. 유리창을 통해서 이러한 내부공간이 행인들에게 보여질 수 있었다. 식물들은 그 공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른 절반은 서류와 정보자료등등이 있는 회의장이었다.

'하하'는 10년 넘게 함께 작업해온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이다. 약 20여개의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는데 이번 '범람' 같은 프로젝트들은 많은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만들어 졌다. '범람'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이 정원의 아이디어는 단순히 누가 이웃으로 살고, 일하고 있고, 서로 연관은 맺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모든 것이 발생한다. 처음부터 공적인 회합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소로서, 즉 공회당의 역할을 하게 되는 공회당의 역할을 하게 되는 전통적인 정원이나 공원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다. 처음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 정원프로젝트의 이유중 하나였다. 그 장소는 서로 만나서 이웃과 놀이 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수경재배는 매우 은유적인 체계이다. 사람들은 땅위에서 자라지 않고 물 속에서 자라는 식물을 볼 때 마다, 그 식물들은 딱딱한 땅으로부터 이탈 되었다고 느낀다. 그것은 매우 불안정하고 많은 정성을 필요로 한다. '하하'그룹은 그러한 시스템의 은유적인 면에 흥미를 가졌다. 그거한 시스템에는 공공사회의 간호와 같은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식물을 키우기 위해 사람들이 많은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식물들은건강해 보이고 생동감이있지만 매우 보드랍다. 왜냐하면 그 식물들은 수경재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돌봄과 책임이라는 명백한 상징이다. 만약 그러한 시스템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그 식물은 곧 누렇게 변할 것이고, 말라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매우 직접적인 은유이다. 이러한 은유는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하하'그룹은 만약에 사람들이 에이즈에 걸리면 무엇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공동사회의 일원으로서사람들은 어떤 책임이 있는가? 그 정원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을 제시했다.

정원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삶을 긍정하는 것이다. 그 곳에서 에이즈 에이즈균 그리고 일반적인 건강회복에 대한 물음이 이웃으로 이루어진 공동사회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프로젝트의 중요한 요소중 하나는 에이즈균에 감염된 보균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어떤 종류의 간호가 최선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보가 교환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 여기서 정보를 수집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정원의 절반은 화단으로 절반은 토론의 장소의 역할을 하게 설계되었다. 토론의 장소에서 많은 것이 이루어졌다. 학자들의 강연, 영양사들의 강연등이 많았다. 조그만 도서관 같이 벽에 책이 있고, 거기서 사람들은 많은 자료들을 찾아 볼 수 있었다. 당연히 콘돔도 있었고, 안전한 성관계에 대한 정보도 있었다.

정원이 있는 곳의 상황은 열악하다. 집 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시 단국이 전기와 수도의 공급을 중단해 버린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 정원은 많은 이웃이 후원해 주고 있다. 캐롤라인 보레일 같은 사람들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그의 모든 시간을 투자한다. 캐롤라인은 이 프로젝트를 위한 수업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지역의 모든 학교와 교회를 연결했다. 테리아미다이는 비디오카메라를 가지고 공적인 연설을 녹취하거나 강연을 촬영했다. 그는 에이즈와 함께 생활해 왔고, 건강을 돌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문화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을 결합시키는 것에 대해서 언급한다.

정원은 에이즈라는 전염병과의 가시적이고, 활기있고, 집합적인 교통을 위한 장소이다. '범람'은 삼년이상 신선한 식품을 지역의 에이즈 기구를 통해서 나누어 주었으며, 일주일에 두 번 식량을 공급했으며, 강좌를 개설했고, 회의를 위한 장소를 제공했고, 공적인 세미나를 열렸고, 시카고에 있는 에이즈 기구에 영양을 공급하는 방법이나 간호방법을 제공했다. '범람'은 미래지향적이고 중요한 선구자적 프로젝트였다.

